

로 LLU 제공을 의무화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망 구간의 광케이블은 망 투자 유인 저해 등을 이유로 의무제공 대상이 포함된 사례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금번 LLU 의무제공 대상에 광케이블을 포함하고자 하는 아일랜드의 논의는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 평가결과와 이에 따른 규제개선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현재로서 아일랜드에서 광케이블에 대한 개방 의무가 부여될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나, 금번 아일랜드의 규제 검토 사례는 국가별·시장별 경쟁상황은 상이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경쟁상황에 적합한 규제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ComReg, market analysis: wholesale unbundled access, 2008.
- [2] Ovum, Irish regulator to include fibre access in LLU regulatory proposal, 2008.

콜롬비아의 정보통신산업 현황 및 발전 계획

정보통신협력연구실 연구원 강정은
(T. 570-4261, chekang@kisdi.re.kr)

1. 개 요

태평양과 대서양 연해에 위치한 콜롬비아는 한반도 약 5배의 크기를 가진 국가로써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6.25전쟁에 참전한 나라이며 한국과는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국가이다. 이러한 한-콜롬비아의 오래된 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가 수십년간 겪었던 경제성장의 부진은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의 장애가 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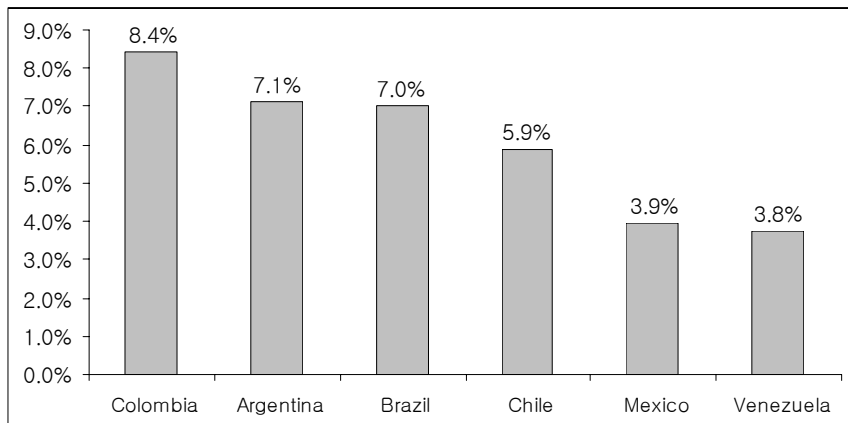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날 콜롬비아 내에서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02년에 이어 2006년 재임에 성공한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경제, 정치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주목할만한 점은 이러한 개혁의 중심에 정보통신이 있다는 점이다. 콜롬비아는 내부적으로 경제 성장, 고용안정, 빈부격차 해소, 치안 등 해결해야 될 정책적 과제를 무수히 안고 있지만 콜롬비아 정부는 정보통신을 모든 문제 해결의 시발점으로 삼고 있다.

2. 콜롬비아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화 현황

콜롬비아 IT내수시장 규모는 '05년도 기준 8.4%를 기록하면서 중남미 주요시장 6개중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컴퓨터서비스, 통신 등 네 가지 분야의 내수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 IT시장규모가 GDP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나 콜롬비아의 IT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보여줬다. 또한 '03년부터 '0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도 23.1%로 비교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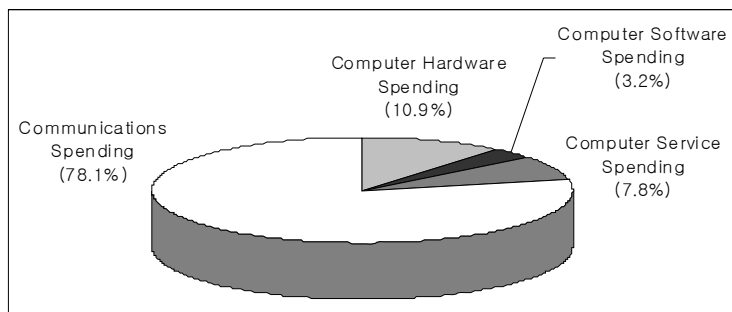
[그림 1] GDP 대비 IT 시장규모 비중(2005)



자료: WITSA(2006)

한편, 분야별 콜롬비아의 내수시장의 경우 규모측면에서는 통신분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률은 컴퓨터서비스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신분야는 전체 내수시장에서 약 78%를 차지하고 있으나 '03년부터 '05년까지 최근 3년간 성장률은 21.8%로 하드웨어 (24.7%), 소프트웨어(29.1%), 컴퓨터서비스(32.0%)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분야별 IT 시장 비중(2005)



자료: WITSA(2006)

그중 콜롬비아의 SW산업은 전체 IT산업 시장규모의 16.0%에 해당하며 2005년 기준 SW 산업매출은 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8% 증가한 수치이다. 향후 세계 IT 산업 흐름이 SW 강세로 지속될 것을 감안한다면 콜롬비아 SW산업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콜롬비아 ICT 산업의 하드웨어 내수시장은 PC, 통신장비, 이동전화단말기 등 3가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품목들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SW산업은 세계 ICT 산업의 흐름에 발맞춰 큰 폭으로 상승중이며 앞으로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 무선통신시장은 2001년 도입 후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동전화 사용 인구는 2008년경에 약 40%에 이를 전망이다.

〈표 1〉 콜롬비아 정보통신 세부지표

지표명	콜롬비아		중남미 평균	중(후)진국 평균
	2000	2005		
유선전화 가설 회선수(천명 당)	171	168	177	205
무선전화 가입자수(천명 당)	54	479	439	306
인터넷 사용자수(천명 당)	21	104	156	95
TV보급률(%)	94	92	87	84
통화실패건수(100회선 당)	44.3	30.6	N/A	25.0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천명 당)	0.2	7.0	16.5	23.1
인터넷내 광대역폭(Bits/명)	15	488	161	116
GDP내 통신산업 비중(%)	2.7	5.2	4.3	1.9
통신산업 투자비율(%)	63.5	N/A	N/A	19.2
GDP내 ICT산업 지출비중(%)	8.5	8.5	4.3	1.9
전자정부 구현도 지수(0~1)	N/A	0.52	0.48	0.38
Secure Internet Server수(백만명 당)	1.7	5.8	12.0	2.3
교육기관 인터넷 보급률(%)	7	N/A	N/A	N/A

자료: World Bank

3. 콜롬비아의 정보통신 관련 지수

콜롬비아 정보통신 관련 지수는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지는 않다. 하지만 콜롬비아 정부가 정보통신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본 지수들은 차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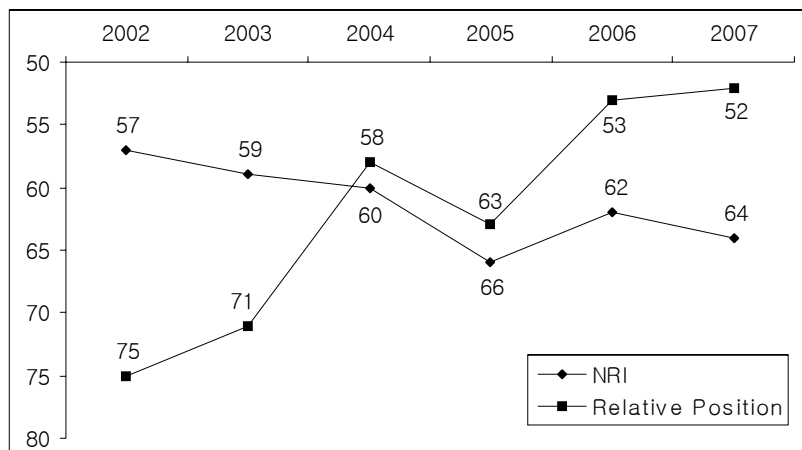
콜롬비아의 디지털 기회지수(digital opportunity index)는 2007년 기준 0.45를 기록하였으며 이 수치는 중남미 국가들의 평균 DOI 지수와 비슷한 수치이다.

또한 콜롬비아의 2006~2007년 NRI(Networked Readiness Index)는 3.59를 기록하면서 절대적인 랭킹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상대적 랭킹¹⁾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콜롬비아 정보통신 관련 지수

기관	평가명	랭킹(점수)
ITU	DOI(Digital Opportunity Index)	80(0.45) _총 181개 국
WEF	NRI(Networked Readiness Index)	64(3.59) _총 122개 국
EIU	e-Business Readiness Index	51(4.41) _총 68개 국

〔그림 3〕 Networked Readiness Index



자료: Plan Nacional de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y las Comunicaciones 자료에서 재인용

4. 콜롬비아 정보통신 발전 마스터플랜

콜롬비아 정부는 2008~2009 ICT National Plan을 수립하고 정보통신의 발전을 통해 콜롬비아 모든 국민의 사회편입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콜롬비아 정부는 일련의 정책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정책 및 계획은 각

1) NRI 지수에 새롭게 추가된 국가 및 제외된 국가들을 고려한 랭킹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 정책 및 실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개의 수직적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부문 및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또 다른 네 개의 수평적 정책은 수직적 정책의 구성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콜롬비아 ICT National Plan의 기본 틀



출처: Colombia ICT National Plan

효율적인 ICT 확산을 위해서 본 계획은 인프라의 접근성 강화, 중소기업의 ICT 확산 및 전자정부 절차의 강화 등 세가지 기본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콜롬비아 정부는 콜롬비아 정보통신 마스터플랜의 실행을 위해서 국가, 민간부문, 교육 부문, 과학 및 사회 부문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5. 결 어

정보통신의 발달이 수많은 개도국들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 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콜롬비아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자국의 정보통신 발전을 통해 국민정보화, 정보통신 산업육성, 중소기업 정보화, 교육수준 향상 등을 달성하여 콜롬비아가 겪고 있는 만성적 문제의 고리를 끊으려고 노력중이며 이를 통해 자국을 중남미 정보통신분야의 허브로 새롭게 부상하려고 노력중이다.

콜롬비아 정부가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의식하고 있는 만큼 콜롬비아 정보통신시장의 경쟁력은 차츰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의 정보통신 문화 창출, 중소기업 정보화, 정보통신 산업 육성, 정보통신 교육수준 향상 등의 정책적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간다면, 콜롬비아 만성적 문제인 빈부격차,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핵심산업의 부재, 높은 문맹률로 인한 국민 경쟁력 부재 등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참고자료:

- [1] Plan Nacional de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y las Comunicaciones, 2008. 3
- [2] DOI(Digital Opportunity Index), ITU
- [3] NRI(Networked Readiness Index), WEF
- [4] e-Business Readiness Index, EIU
- [5] World Bank
- [6] 콜롬비아 IT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조사, 외교통상부, 2006. 7
- [7] 중남미 IT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KOTRA, 2007. 8. 1